

K-클래식 스포트라이트 시리즈

2023. 6. 30. (FRI) - 7. 1. (SAT)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2023.7.1.(SAT)
17:00

2023.6.30.(FRI)
20:00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협연

바이올린

박수예 Sueye Park

피아노

이혁 Hyuk Lee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협연

첼로

심준호 Joon Ho Shim

피아노

박재홍 Jae Hong Park

지휘 Conductor



©Seung-Won, Jang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그라모폰> 지

요엘 레비 Yoel Levi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KBS교향악단의 제8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약한 요엘 레비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대, 유려한 곡 해석으로 한국 관객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악단들을 지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를 비롯해 피렌체, 제노바, 프라하, 브뤼셀, 프랑스 등지의 세계적인 오페라단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세계 유수의 음반 레이블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 협연자와 함께 40장 이상의 음반을 녹음했으며, 이 중 30장의 음반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텔라크 레이블에서 발매하였다. 2018년 KBS교향악단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루마니아 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요엘 레비는 텔아비브 음악원, 예루살렘 음악 아카데미,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78년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6년간 로린 마젤의 어시스트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주 지휘자로 경험을 쌓았고, 이후 12년간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악단을 이끌었다.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거쳐 이스라엘인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수차례의 유럽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현재 이스라엘 하이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K-CLASSIC SPOTLIGHT SERIES I. PASSIONATE

지휘 Conductor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Violin

박수예 Sueye Park

피아노 Piano

이혁 Hyuk Lee

2023.6.30.(FRI) 20:00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PROGRAM

이수연 점과 선으로부터

8 min

Suyeon Lee von Punkten und Linien (From Points and Lines)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

33 min

P. I.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1악장 Allegro moderato (19')

2악장 Canzonetta; Andante (7')

3악장 Finale. Allegro vivacissimo (7')

인터미션 Intermission

15 min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b단조, 작품23

32 min

P. I. Tchaikovsky Piano Concerto No.1 in b^b minor, Op.23

1악장 Allegro non troppo e molto maestoso (17')

2악장 Andantino semplice (8')

3악장 Allegro con fuoco (7')

©Jino Park



바이올린 Violin

박수예 Sueye Park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는 4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2009년부터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 대학에서 울프 발린 교수를 사사, 현재 최고연주자과정을 밟고 있다.

그녀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콩쿠르가 아닌 음반과 공연으로 본인의 음악세계를 확장하며 16세에 BIS 레이블로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전곡을 녹음한 데뷔 음반을, 17세에 두 번째 음반 '사랑의 인사'를 발매했다. 2021년 발매한 박수예의 세 번째 음반 '세기의 여정'은 영국 <그라모폰>지의 '이달의 음반' 및 '2021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2022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드 '올해의 음반' 기악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오스모 벤스케가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정기연주회에서 윤이상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협연하였으며, 공연 실황은 음반으로 녹음되어 2022년 8월 발매되었다. 지난 4월, 전곡 시마노프스키로 구성된 음반을 발표함으로써 23세의 나이에 무려 다섯 장의 인터내셔널 음반을 발매한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2년에는 포브스 코리아 선정 '2030파워리더 20인'에 선정되어 커버를 장식하기도 했다.

안나 마리아 헬싱 지휘의 스웨덴 베를란드 오페라 오케스트라, 안나 라키티나 지휘의 스웨덴 베스테로스 신포니에타, 아리 라실라이넨 지휘의 남서독 필하모니 콘스탄츠와 협연했다. 스웨덴 고틀란드 페스티벌, 폴란드 크르지조바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세계적인 연주자 게리 호프만, 아드리안 브렌델 등과의 실내악 연주뿐 아니라 세이지 오자와 아카데미에서 제네바 빅토리아홀 연주 등 해외 무대에서 저명 음악가 및 악단과의 활발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반기 마지막 발트뷔네 콘서트를 지휘한 구스타프 두다멜이 박수예의 연주를 듣고 그 자리에서 향후 자신과 함께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을 레코딩하기로 제안한 것 또한 앞으로 기대되는 작업 중 하나이다.

뮌헨 바트 라이헨할 필하모니에서의 협연 당시 볼프강 함베르거는 그녀의 연주를 듣고 파가니니 녹음에 과르네리 델 제수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데뷔 음반에서 사용했다. 현재 박수예는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밀라노 1753년 산 지오반니 바티스타 과다니니를 사용하고 있다.



피아노 Piano

이혁 Hyuk Lee

2000년 서울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 이혁은 파리 고등사범 음악원(ENMP)에서 마리안 리비츠키 사사로 최고연주자과정을 밟고 있다. 만 3세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작하며 음악 세계에 입문한 그는 14세에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블라디미르 옴친니코프를 사사하였으며, 빈 국립음대에서 슈테판 아르놀트 교수를 사사하며 레퍼토리를 확장했다.

2016년 16세의 나이로 폴란드 비드고슈치에서 열린 제10회 파데레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이어 2018년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쇼팽은 이혁이 늘 동경하는 작곡가로, 그는 201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쇼팽 청소년 콩쿠르에서 1등상 및 최우수 협주곡상을 거머쥐었다. 그는 2021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결선에 진출했다. 같은 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회 아니마토 콩쿠르 - 쇼팽 에디션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였으며, 이후 파리 고등사범 음악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그는 바르샤바 필하모닉, 샬레 극장, 루돌피눔, 스메타나 홀, 차이콥스키 음악원 등 전 세계의 유명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으며,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도쿄 교향악단, 우크라이나 국립 교향악단,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2023년 여름 프랑스와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서의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7월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아 에펠탑 아래에서 독주 무대를 선보인다. 동생 이효와 함께 피아노 듀오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2022/23 시즌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무대에 올랐다.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작곡 연도

2022년

초연

2022년 6월 10일,
독일 자브뤼켄

편성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심벌즈, 큰북, 작은북,
탐탐, 트라이앵글, 현5부

연주 시간

약 8분

이수연 점과 선으로부터

Suyeon Lee von Punkten und Linien (From Points and Lines)

이 곡은 '점'과 '선'을 통해 펼쳐진다. 그들은 곡 안에서 자신들의 속성을 드러내며 그들 사이의 경계를 만들고 또 흐리기도 한다. 또한 서로 상호 작용하여 여러 가지 음형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음향을 형성한다. 나는 칸딘스키의 <점·선·면>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 미술 작품에서 점과 선은 시각적으로 대조된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화를 이룬다. 음악에서도 대조적인 요소들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작업의 시작이었다.

음악과 회화의 차이점은 음악은 시간 예술이지만 회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관람자들은 미술 작품을 통해 점과 선의 관계가 표현되는 순간만을 볼 수 있지만, 음악에서는 청중들이 이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다. 각 섹션마다 점과 선은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그들의 관계를 추측하며 곡을 감상한다면 더욱욱 흥미로운 것이다.

글 | 이수연(작곡가)



작곡가 이수연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학사를,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교에서 작곡전공 석사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자브뤼켄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이다.

2023년 제14회 아창제에 당선, 2022년 독일 자브뤼켄 방송교향악단 관현악 작품 공모에 당선되었으며 2017년 제40회 창악회 콩쿠르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 <음악오늘>에서 젊은 작곡가로 위촉되어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 밖에 Nathan Plante, Ensemble Ö!, Ensemble LUX:NM 등 다양한 연주단체에 의해 작품이 연주되었다.

작곡 연도
1878년

초연
1881년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 시간
약 33분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

P. I.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1878년에 작곡된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1840~1893)의 단 하나뿐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작곡가의 명성만큼이나 자주 연주되고 사랑받는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차이콥스키는 1877년 겨울부터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포함해 긴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 영감을 받아 순식간에 작품을 스케치했다. 차이콥스키는 자신의 후원자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곧 탄생할 작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차이콥스키 특유의 달콤한 멜로디로 시작되는 1악장은 작품의 길이나 감정 면에서 나머지 두 악장보다 훨씬 장대하다. 이후 현악기를 시작으로 악기들이 하나둘씩 가세하면서, 본격적으로 밀도 높은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여준다. 이때 만드는 오케스트라의 총주는 앞으로 나올 차이콥스키 특유의 화려하고 뜨거운 음악을 예고한다. 클라이맥스에선 러시아 특유의 애수까지 더해져 듣는 관객을 정서적으로 압도한다.

2악장은 목관악기들의 꿈결 같은 서주로 문을 연다. 이후 독주 바이올린이 아련한 주제를 연주하며,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음악을 전개한다.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3악장은 오케스트라의 강력하고 돌발적인 연주와 함께 시작된다. 2악장의 아련한 분위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이후 협연자와 오케스트라가 격렬하게 음악을 주고받으며 작품은 피날레를 향해 달려간다.

작품은 지금의 유명세와는 달리, 초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우선 지나치게 어려운 탓에 초연을 담당하기로 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오폴트 아우어가 난색을 표했다. 그는 바이올린 파트가 실제로 연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레오폴트 아우어 대신 겨우 섭외된 아돌프 브로드스키가 1881년에 초연을 끝마쳤으나, 심각한 혹평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차이콥스키는 작품의 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이 작품은 마침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는다. 차이콥스키는 험난한 과정을 함께한 아돌프 브로드스키에게 작품을 헌정했다.

작곡 연도
1854-1859년

초연
1859년 1월 22일,
독일 하노버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현5부

연주 시간
약 32분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b단조, 작품23

P. I. Tchaikovsky Piano Concerto No.1 in b^b minor, Op.23

차이콥스키는 총 3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는데, 그중에서도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연주자와 청자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받는 작품이다.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과시할 수 있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감미로운 멜로디는 단번에 귀를 사로잡기까지 한다.

1악장은 호른의 드라마틱한 연주와 함께 시작한다. 그리고 피아노는 이에 깨어나듯 큰 스케일의 화음들로 대답한다. 피아니스트는 작품 내내 거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경쟁하며 자신의 소리를 내야 하고, 또 중간중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화음들을 처리해야 하기에 이 작품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한 작품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빠른 패시지 사이사이에 러시아 민요들이 등장하는데, 이 노래들을 섬세하게 부각해야 한다는 점은 작품의 연주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2악장은 플루트의 아름다운 주제로 시작되는데, 이 주제를 근간으로 2악장이 발전해 나간다. 약 150년 전에 만들어진 멜로디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악장이다. 이어지는 3악장은 이와 대비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요에서 차용한 흥겨운 주제가 작품의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와 대화를 이어가며 마지막의 불타오르는 코다까지 질주한다. 이 작품이 동시대 다른 작곡가들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보다 기법이 세련되었다고 볼 순 없지만, 그 어느 작품보다도 열정적이고, 솔직하다. 또 참을 수 없이 낭만적이며, 러시아 특유의 정서가 순도 높게 녹아 들어가 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지만, 이 곡이 처음부터 이런 인기를 누린 것은 아니다. 작품의 흐름이 기괴하고, 또 실제로 연주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모스크바 음악원장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이 작품에 대해 혹평했다. 이에 분개한 차이콥스키는 단 하나의 음표도 고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글 | 허명현(음악 칼럼니스트)

K-CLASSIC SPOTLIGHT SERIES II. POWERFUL

지휘 Conductor

요엘 레비 Yoel Levi

첼로 Cello

심준호 Joon Ho Shim

피아노 Piano

박재홍 Jae Hong Park

2023.7.1.(SAT) 17:00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PROGRAM

김신 아침기도 *세계 초연

10 min

Shin Kim Matins *World Premiere

엘가 첼로 협주곡 e단조, 작품85

30 min

E. Elgar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1악장 Adagio. Moderato (7')

2악장 Lento. Allegro molto (6')

3악장 Adagio (6')

4악장 Allegro. Moderato. Allegro, ma non troppo (11')

인터미션 Intermission

15 min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단조, 작품15

44 min

J. Brahms Piano Concerto No.1 in d minor, Op.15

1악장 Maestoso (21')

2악장 Adagio (11')

3악장 Rondo. Allegro non troppo (12')



첼로 Cello

심준호 Joon Ho Shim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오가는 전방위 플레이어로, 현재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첼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심준호는 강렬하고 거침없는 연주, 깊이 있는 소리와 끊임없는 탐구 정신으로 수많은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모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타고난 음악적 재능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 그는 금호영재콘서트를 시작으로 중앙음악콩쿠르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2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10년 쥘네스 뮤지컬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함으로써 유럽을 넘어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베를린 융에 필하모니, 베오그라드 RTS 방송교향악단, 노르웨이 방송교향악단, 자그레브 필하모닉, 자그레브 솔로이스츠 등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노르웨이 베르겐 뮤직 페스티벌, 파거보그 뮤직 페스티벌, 네덜란드 오우드워터 뮤직 페스티벌, 헝가리 세계드 뮤직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어 독주회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유럽 ECMA(European Chamber Music Academy) 멤버로 활동하며 실내악 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진 그는 2012년, 그의 음악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을 결성하며 2015년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을 완주하였다. 한국의 차세대 연주자들이 모인 클럽M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인 소니 클래식을 통해 발매된 <Beethoven & Rachmaninoff> 음반은 애호가들과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2022년 롯데콘서트홀에서 <4 Cities>라는 주제의 단독 리사이틀을 성황리에 마치며 다시금 그의 저력을 클래식 팬들에게 과시했다.

서울시향의 수석 첼리스트를 역임한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조영창을 사사하였고, 노르웨이 국립음악원에서 이 시대 최고의 거장 트롤스 뢰르크와 지안 왕을 사사하며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마쳤다. 현재 세계적인 스트링 브랜드 라센 스트링스의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1710년도 'Carlo Ruggeri'에 의해 제작된 'Vaska' 악기를 사용 중이다.

©Rohsh



피아노 Piano

박재홍 Jae Hong Park

2021년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4개의 특별상과 함께 우승을 거머쥔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를 사사한 그는 일찌감치 클리블랜드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와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루빈스타인, 에틀링겐, 힐튼 헤드 외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도 상위 입상하였다.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이 포메리지 무지칼리 오케스트라, 토스카니니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유럽 연합 유스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그는 정명훈,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크리스티안 예르비, 텅취 창, 오메르 메이어 웰버, 제임스 페텍, 아브너 비론, 아르보 볼메르 등과 호흡을 맞추며 음악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볼차노 페스티벌, 토리노 링고토 무지카 페스티벌과 볼로냐 무지카 인시에메 페스티벌을 포함한 유수의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그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도쿄 산토리홀, 오사카 심포니홀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를 선보이고, 젊은 거장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2023/24 시즌에는 슈타츠틀하모니 뉘른베르크와의 협연, 빌데 프랑, 바딤 글루즈만, 막시밀리안 호르농 외 유수의 연주자가 함께하는 토스카나 실내악 페스티벌에서의 연주, 미켈란젤리 페스티벌에서의 독주와 및 홍콩 및 두바이에서의 데뷔 독주회를 비롯한 해외 유수의 공연장에서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작곡 연도
2023년

편성

플루트2(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차임벨, 슬레이벨,
서스펜디드 심벌,
트라이앵글, 큰북, 작은북,
윈드차임, 탐탐, 비브라폰,
하프, 피아노, 첼레스타,
현5부

연주 시간
약 10분

김신 아침기도 *세계 초연

Shin Kim Matins *World Premiere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들까. 계기, 목적, 대상, 그리고 형태는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간절함이라는 감정은 대부분의 기도에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곡을 작곡하기 전, 나는 '기도'라는 행위가 가지는 간절함과 경건함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침 기도에 집중했다. 하루의 첫 기도가 가지는 의미와 절실함은 더욱 특별하다. 잠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만큼 진심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것은 많이 없을 것이다.

이 곡을 통하여 아침 기도의 행위 그 자체와 더불어, 기도를 하는 동안 새벽의 짙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을 함께 묘사하고자 하였다. 이 곡을 쓰는 나 자신과 이 곡을 듣고 연주하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 간절한 바람이 선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 곡을 작곡하였다.

글 | 김신(작곡가)



작곡가 김신은 1994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영국 왕립음악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예술사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교류수학과정을 수료하였다.

제네바 국제 콩쿠르 작곡부문 1위,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교향악 작곡 부문 우승, 중앙음악콩쿠르 작곡부문 1위,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작곡부문 1위,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대상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바 있으며, (사)한국작곡가협회 2019 파안 생명나무 작곡가 선정 및 (사)한국음악협회 2022 한국음악상 젊은음악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그의 음악은 네덜란드 Gaudeamus Muziekweek, 오스트리아 Wien Modern,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ARKO 한국창작음악제, ISCM Korea 범음악제 등 세계의 여러 음악제에서 발표되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오네이로이의 노래>, <교향곡 1번 "위로">, <훈장말> 연작 등이 있으며, 현재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한국지부 회원 및 앙상블 SONOR XXI 상임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곡 연도
1919년

초연
1919년 10월 27일,
영국 런던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현5부

연주 시간
약 30분

엘가 첼로 협주곡 e단조, 작품85

E. Elgar 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1919년에 작곡된 이 작품은 에드워드 엘가(1857~1934)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며, 그가 남긴 마지막 대작으로 평가받는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스케치를 시작하기도 했고, 또 그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작곡된 작품이기에 음악은 비극적인 정서를 머금고 있다.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며, 1,2악장과 3,4악장으로 나뉘어 각각 쉬지 않고 연주된다.

작품은 첼로의 독주로 시작된다. 단 몇 마디 만에 짙은 어둠을 가진 작품임이 드러난다. 슬픔은 점점 고조되고,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오케스트라 전체에 슬픔이 번져 나간다. 이어지는 2악장은 첼로의 경쾌한 노래로 시작하며, 1악장의 슬픔과는 거리를 둔다. 1악장의 깊은 슬픔은 점차 잊혀간다.

3악장은 명상하듯 차분하게 노래한다. 첼로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읊조리며 아다지오가 시작된다. 엘가가 스스로에게 혹은 음악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가 바로 이 첼로 협주곡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악장이다. 마지막 악장은 다시 비극적인 정서로 돌아온다. 앞서 사용된 주제들을 회상하듯 떠올리며 작품이 마무리된다.

초연 당시 이 작품은 뜨거운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관객이 엘가의 작품에서 기대했던 정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풍당당 행진곡'이나 '사랑의 인사' 같은 당대 유행한 엘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첼로 협주곡은 지나치게 비극적이었다. 낭만적이면서도 즐거운 음악을 기대했던 관객은 엘가의 비극적인 신작에 당황스러워 했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는 이런 종류의 작품에 대해 심리적인 저항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첼리스트 재클린 뒤 프레가 이 곡을 연주하며 작품의 가치는 급격히 격상된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작품의 영혼과 가까웠던 재클린 뒤 프레가 꺼져가던 작품에 불씨를 살렸다. 덕분에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첼리스트들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으며 지금처럼 콘서트를 무대 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작곡 연도
1854-1855년

초연
1859년 1월 22일,
독일 하노버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 시간
약 44분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단조, 작품15

J. Brahms Piano Concerto No.1 in d minor, Op.15

1858년에 작곡된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대표적인 브람스의 청년시절 작품이며, 큰 편성의 관현악을 활용한 브람스 최초의 작품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작품은 1854년부터 착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의 스승 로베르트 슈만이 라인강에 투신한 이후, 브람스가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를 보살피던 시기가 당시 클라라 슈만과 함께 연주하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작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브람스는 원래 이 소나타를 바탕으로 한 편의 교향곡을 작곡하려 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였던 브람스는 지금의 오케스트레이션이 교향곡으로 작곡되기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피아노 협주곡으로 선회한다. 그런 이유로 이 작품은 피아노 협주곡이지만 오케스트라의 비중도 매우 높다.

작품의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역할이 느껴진다. 더블베이스, 비올라, 팀파니 등이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위로 바이올린과 첼로가 1주제를 제시하며 1악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서주가 찾아올 때쯤, 피아노가 조용히 홀로 등장한다. 피아노가 먼저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뒤이어 고독하게 주제를 읊조리는데 대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장치다.

2악장은 1악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다. 명상적이고, 사색적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듯 따뜻한 목소리가 느껴지는데, 클라라를 보살피던 브람스의 애틋한 마음이 드러난다. 브람스는 아다지오 악장을 일컬어 클라라 슈만의 초상화라고 표현했다. 이어지는 3악장은 활력이 넘치는 집시풍의 음악이다. 피아노가 먼저 주제를 제시하고, 오케스트라가 주제를 이어 받으며 따라온다. 곳곳에 등장하는 바로크적인 기법은 브람스가 작곡한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를 떠올리게도 한다.

작품은 1858년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 이듬해 하노버 궁정극장에서 공개적으로 초연된다. 이 작품은 공개연주회에서 브람스 자신이 직접 연주하기도 하고, 또 클라라 슈만이 연주하기도 하며 점점 명성을 더해갔다.

글 | 허명현(음악 칼럼니스트)

BEYOND TIME AND SPACE



시공의 경계를 넘어



©Pascal Albardopoulos

ARTISTS

지휘 크리스티안 라이프 Christian Reif
피아노 알리스 사라 오토 Alice Sara Ott

PROGRAM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제3번 C장조, 작품 72b
L. v. Beethoven Leonore Overture No.3 in C Major, Op.72b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 37
L. v. Beethoven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37

슈트라우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작품 30
R. Strauss Also sprach Zarathustra, Op.30

2023.07.14.(Fri) 20:00 롯데콘서트홀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